

‘KIA행’ 나주환의 말 한마디

# “명문구단서 도전할 수 있어 영광”

프로야구 SK에서 KIA로 이적  
무상 트레이드 통해 영입돼

“SK, 선수생활 연장 도와줘  
KIA는 나에게 기회를 준 팀  
이번 겨울엔 열심히 준비해  
팀 ‘V12’ 이루도록 힘 보낼 것”

“SK에서 좋은 추억이 많아 잠시 주저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도전해볼만한 몸 상태라 생각했고, 명문구단에서 도전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조건 없는 트레이드를 통해 SK 와이번스에서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나주환(35)의 말이다. KIA는 지난 25일 SK와의 무상 트레이드를 통해 나주환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시즌 전력 구상에서 나주환을 제외한 SK는 코치 연수나 프런트를 제안했다. 나주환은 고심 끝에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뜻을 SK 구단에 전달했다.

SK가 2차 드래프트 때 나주환을 40인 보호선수에서 제외했지만, 지명하는 구단은 없었다. 이에 SK는 다른 구단과 무상 트레이드를 시도했고, KIA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트레이드 발표 이후 나주환은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로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코치로 일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일”이라면서도 “올 시즌 모든 면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아직 선수로서 한 번 더 도전해볼만한 몸 상태라는 생각이 컸다”고 현역 연장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나주환은 올 시즌 타율 0.222 3홈런 20타점 14득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수 년 동안 SK의 주전 선수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119경기 출전해 타율 0.262 12홈런 56타점 54득점으로 훌륭한 활약을 선보였다.

섭섭할 수도 있지만, 나주환은 SK의 전력 외 판단 결정을 이해했다. 그는 “내가 성적이 좋지 않았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야 하니 구단이 그런 결정을 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SK 구단으로부터 KIA에서 트레이드 의사를 드러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나주환은 아주 잠시 주저했다고 털어냈다. SK에서 워낙 오랜 기간 뛰었기 때문.

2003년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SK는 나주환에게 친정팀이나 다름없었다. 2007년 11월 트레이드를 통해 SK 유니폼을 입은 뒤 12년 동안 SK에만 뛴었다.



SK에서 KIA로 이적한 나주환.

나주환은 “SK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뛰었고, 좋은 추억이 너무 많이 남겼다. 12년 동안 우승 반지도 4개나 졌고, 즐거운 기억이 많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떠올렸다.

이어 “새로운 팀에 가서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떠나게 되더니 잠시 주저하게 되더라. SK에서 은퇴하는 것이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망설였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의지가 주저하는 마음을 몰아냈다. 몸 상태에 자신도 있다.

나주환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워낙 컸다. 몸 상태도 좋다.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주환은 “SK는 선수 생활을 연장할 수 있

록 도와준 팀이다. KIA에서도 기회를 주셨다. 두 팀에 모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잘 살려보겠다는 각오다. 나주환은 이번 겨울 ‘배수의 진’을 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6일 광주를 찾아 조계현 단장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에 인사를 한 나주환은 “다행히도 반겨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 이번 겨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주환은 “KIA는 2년 전에도 우승을 차지한 명문구단이다. 그런 팀에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백업 선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KIA의 열정적인 팬들이 더 많이 야구장을 찾고, KIA가 V12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부에서는 전북 14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스포츠 현장 응급상황 대처

### 전북 생활체육지도자 응급처치 교육

전북 14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2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길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부에서는 도내 14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 된 이번 교육에서는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 인식과 비상 시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교육을 넘어 위급 상황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화상 응급처치 등을 숙지했다.

또 상황별(중독·질병·근육 파열·이물 질에 의한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생활체육지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지도활동 및 각종 대회 참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심폐소생술 등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자들을 비롯해 체육인들의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남자 프로농구, 전 시즌대비 관중 23% 증가

### 시청률도 53% 급증

남자 프로농구 지난 시즌 대비 큰 폭으로 관중과 시청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프로농구 주관방송사 스포티비에 따르면,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2라운드가 진행 중인 75경기 현재 총 14만2837명이 체육관을 찾아 경기당 317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시즌대비 23.5% 증가한 수치다. 지난 시즌에는 평균 2829명이 찾았다.

프로농구는 최근 두 시즌 연속으로 평균 2000명대 관중에 그쳤다.

75경기 시청률도 0.174%(전국 가구·닐슨 코리아 기준)로 53% 급증했다. 지난 시즌 같은 기간에는 0.114%를 기록했다.

포털 사이트의 생중계 시청자 수는 지난 시즌 평균 2만1832명에서 3만4588명으로 증가했다.

경기 관련 영상 조회 수 역시 지난 시즌 1라운드 763개 영상에서 287만회 재생된데 비해 올해는 443개 영상에서 790만회를 넘어섰다.

평일 경기 수를 줄이고, 팬들이 체육관을 찾지 않도록 주말에 경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